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코로나19 방역요원 격려물품 전달식 참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7월 28일 덕양구보건소를 방문하여 고양시학원연합회(회장 이재범)가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 참석한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김수환 의원과 고양시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및 폭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요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양시학원연합회에서 준비한 쿨조끼 30벌을 보건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7차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8월 26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분야별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의회 의원 명의의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특례 반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발굴하겠다”며,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건강상식

가을철,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비염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피부로 체감되는 요즘이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비염'이 그것. 멈추지 않는 콧물에, 연일 이어지는 재채기까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는 알레르기비염!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질병관리청

알레르기비염이란?

알레르기비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집먼지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질환이다. 감기와 알레르기비염은 코 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유사하나, 알레르기비염은 아침 또는 저녁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1주일 이상 지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은?

알레르기비염은 재채기, 맑은 콧물, 코 가려움증,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며 간지럽거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축농증, 코 물혹, 중이염, 수면장애, 천식 등을 유발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 만성적 코 막힘과 구(口)호흡으로 인해 치아 부정교합이 발생하여 얼굴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의욕상실, 생산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기타 증상**

- 눈, 입천장, 목 안이 가렵거나 아프다.
- 눈물이 난다
- 두통이 있다.
- 냄새를 맡지 못한다.
- 코피(저절로, 혹은 코를 후벼서)가 난다.

왜 환절기에 심해지는 걸까?

알레르기비염은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자극에 의해서도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기온 차가 큰 환절기에 증상이 심해지게 된다. 또한,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기도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예방하자!

- ① 금연하고, 담배 연기 피하기
- ②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③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기
- ④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 꼭 착용하기
- ⑤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여 합병증 예방하기 🏠

